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수상작 및 수상자 리스트

- 목차 -

1. 뉴 커런츠상
2. 지식상
3. 비프메세나상
4. 선재상
5. 올해의 배우상
6. KB 뉴 커런츠 관객상
7.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
8.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9.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10. 한국영화감독조합상-메가박스상
11. CGV상
12. KBS독립영화상
13. CGK촬영상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14. 크리틱b상
15. 왓차상
16. 왓차단편상
17. 오로라미디어상
18. 시민평론가상
19. 부산시네필상
20. 이춘연 영화인상



I.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심사위원단은 감독이 극중 인물들을 얼마나 민첩하고 정교하게 바라보는지를 특히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괴인>은 혁신적인 촬영 기법을 통해 한집에 있는 인물들 간의 독특한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며 아주 현대적인 세계관을 쌓아 올린 작품입니다. 이에 뉴 커런츠 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작 2] <그 여자, 쉬밤마> | 자이산카르 아리아르 | 인도

심사평: 현시대에 걸맞는 이야기를 완성시켜 준 감독의 독창성과 강렬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만나 이토록 자연스럽게도 활력 넘치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매 장면마다 끈끈하게 어우러지는 배우들의 부드러운 연기가 빛납니다. 이에 뉴 커런츠 상을 수여합니다.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세르주 투비아나(프랑스/유니프랑스 회장)

- 심사위원: 알랭 기로디(프랑스/감독)

카밀라 안디니(인도네시아/감독)

카세 료(일본/배우)

이유진(대한민국/제작자)

2. 지식상

[수상작 1] <바람의 향기> | 하디 모하계흐 | 이란

심사평: 첫 번째 수상작은 이란의 하디 모하계흐 감독님의 <바람의 향기>입니다. 작품 구성 전반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힘, 그리고 매 장면마다 감명 깊게 두드러지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이유로 꼽습니다. 그리운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에게 바치는 헌사를 담았지만 동시에 본 작품의 주연까지 인상적으로 소화해 낸 감독의 고유한 목소리와 시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수상작 2] <변모> | 올킨 투이치에브 | 우즈베키스탄

심사평: 또 하나의 수상작은 우즈베키스탄의 올킨 투이치에브 감독의 <변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역사를 서구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소련의 문화와 배경을 바탕으로, 색다른 시각을 압도적인 영상미를 통해 선사하는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지석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장-미셸 프로동(프랑스/영화평론가)
오기가미 나오코(일본/감독)
김희정(대한민국/감독)

3. 비프메세나상

[수상작 1] <두 사람을 위한 식탁> | 김보람 | 대한민국

심사평: 비프메세나의 한국작품은 김보람 감독의 <두 사람을 위한 식탁>입니다. 작품 전반에 나타난 정서적인 힘, 깊고도 내밀한 내면, 모녀 사이의 복잡한 애정과 갈등의 시간들을 치밀하면서도 탁월하게 이미지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수상작 2] <축구광 자흐라> | 샤흐민 모르타헤자데, 팔리즈 쿠쉬델 | 이란

심사평: 비프메세나상의 아시아 작품은 샤흐민 모르타헤자데, 팔리즈쿠쉬델 감독의 <축구광 자흐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주인공을 통해 이란의 여성차별적인 현실과 역사를 강렬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유쾌한 형식과 잘 짜여진 구성으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잘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특별언급] <친애하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 | 첸시이 | 미국, 중국

심사평: 어머니와 딸 사이의 투병과 돌봄에 대한 소재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안정적인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왕빙(중국/감독)
오사마 모하메드(시리아/감독)
김일란(대한민국/감독)



4. 선재상

[수상작 1] <따스한 오후> | 란 티안 | 중국

심사평: 아시안단편경쟁의 대상은 란 티안 감독의 <따스한 오후>로 결정했습니다. 보통의 가족 이야기 안에 중국의 소수민족 이슈를 함께 녹여 흥미롭게 풀어낸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보편적인 드라마 안에 매우 예민한 사회적 이슈를 섬세하게 담아낸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들의 날것 같은 연기와 미장센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단편 장르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훌륭하게 완성해낸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수상작 2] <그리고 집> | 정은욱 | 대한민국

심사평: 한국단편경쟁의 대상은 정은욱 감독의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중요한 테마, 이른바 간병과 노인문제와 가족 내 젠더 이슈 등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진실성 있게 다뤄낸 놀라운 작품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갖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인물들을 매우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한편, 그들의 상황을 매우 영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는 성취를 이뤄낸 이 작품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언급] <타인의 삶> | 노도현 | 대한민국

심사평: 한편, 특별언급으로 <타인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미니멀한 설정과 인물 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힘있게 밀어 붙이는, 단편영화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정제된 배우의 연기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면을 맛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선재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사에드 루스타이(이란/감독)

하야카와 치에(일본/감독)

윤가은(대한민국/감독)



5.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배우상-남자] 김영성 | <빅슬립> | 대한민국

심사평: 이번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역시 영화제의 위상에 걸맞는 좋은 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심사한 올해의 배우상 배우들의 좋은 연기들을 보면서 저의 연기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고 우리 영화에 아직 숨겨진 보석 같은 배우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 모두의 축제로 더욱 빛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의 배우상-여자] 김금순 | <울산의 별> | 대한민국

심사평: 울산 바다같이 넓고 깊고 푸른 연기를 보여준 그녀에게 희망찬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직도 이렇게 훌륭한 배우를 몰랐다니 나의 무지를 탓한다. 그녀는 충분히 젊고 새롭고 신선한 배우이자 올해 주목받아 마땅한 찬란한 배우이다.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이영애(대한민국/배우)

김상경(대한민국/배우)

6. KB 뉴 커런츠 관객상

[수상작] <그 겨울> | 아미르 바쉬르 | 인도, 프랑스, 카타르

7.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

[수상작] <라이스보이 슬립스> | 앤소니 심 | 캐나다



8.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수상작] <천야일야> | 구보타 나오 | 일본

심사평: <천야일야>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감과 새로운 삶의 재건 과정을 수려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바닷가 풍경을 활용하여 인물들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빛납니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에이야 니스카넨(핀란드/영화평론가)

왕신(대만/영화평론가)

안치용(대한민국/영화평론가)

9.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극중 목수일을 하는 주인공과 같이 이 영화는 단순한 방법으로 한 세대의 내면을 완성해 나가며 끝에는 경이롭고 예측불허한 존재론적 결과에 도달합니다. '자동차 위로 뛰어오른 건 누구였을까?' 와 같은 일상의 작은 미스터리들을 풀어나가듯이, 영화는 평이함 속의 모험을, 쉽사리 보기 힘든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헤르빈 탐스마(네덜란드/영화평론가)

첸겔 다바아삼부우(몽골/제작자)

김동현(대한민국/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10. 한국영화감독조합상-메가박스상

[수상작 1] <빅슬립> | 김태훈 | 대한민국

심사평: 거칠지만 온정이 있는 사내와 외로운 가출소년의 교감과 상생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펼쳐낸다. 묵직하고 섬세한 연기를 보여준 두 배우와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려 깊은 연출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수상작 2] <울산의 별> | 정기혁 | 대한민국

심사평: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일해온 주인공과 그 가족이 처한 삶의 풍경을 조망한다.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의 초상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낸 연출이 인상깊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메가박스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정가영(대한민국/감독)

정병각(대한민국/감독)

정세교(대한민국/감독)

11. CGV상

[수상작] <비닐하우스> | 이슬희 | 대한민국

심사평: <비닐하우스>는 독창적인 스토리라인과 예측할 수 없이 반전되는 장르를 유려하게 잘 풀어낸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리얼리티를 살리는 배우들의 명연기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극에 긴장감을 더하며, 엔딩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슬희 감독의 다음 작품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비닐하우스>에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 CGV상을 수여합니다.

12. KBS독립영화상

[수상작]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의 괴작. 무엇을 상상하든 그 예상을 배반하는 <괴인>은 올해 부산에서 선보인 모든 신진 감독의 영화를 통틀어 가장 전형성에서 비껴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한다. 설명할 수 없는 우연과 기묘한 조우가 빚어내는 삶의 아이러니한 풍경들을 특유의 독특한 리듬감으로 담아낸 이 영화는 한국 독립영화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신진 감독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KBS독립영화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윤성호(대한민국/감독)
장영엽(대한민국/영화기자)
김윤미(대한민국/제작자)

13. CGK촬영상

[수상작] <지옥만세> | 정그림 촬영감독 | 대한민국

심사평: <지옥만세>의 촬영은 독특한 아웃 오브 포커스를 통해 나미와 선우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임을 암시하지만, 영화의 엔딩에서는 결국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의지가 되어줄 것임을 표표히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의 카메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영화적인 순간들을 만들어 내어 자연스럽게 관객을 두 사람의 여정에 동행시킨다.

CGK촬영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형구(대한민국/촬영감독)
제창규(대한민국/촬영감독)
엄혜정(대한민국/촬영감독)

14. 크리틱b상

[수상작]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괴인>은 지향점을 알 수 없는 느슨한 서사와 잉여감, 영화 전반의 능청스러움마저 정밀히 세공하여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작품입니다. 인물과 공간을 유연하게 넘나들으로써 그 정밀함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신비로운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모두 이에 공감하는바, 크리틱b 상을 수여합니다.

크리틱b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나영(대한민국/영화평론가)
김민우(대한민국/영화평론가)
이상경(대한민국/영화평론가)



15. 왓차상

[수상작 1] <공작새> | 변성빈 | 대한민국

심사평: 배우 해준의 매력적인 연기와 배우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촬영, 프로덕션 디자인, 그리고 강렬한 음악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따뜻한 가족드라마로 풀어낸 점이 인상 깊음.

[수상작 2] <비닐하우스> | 이솔희 | 대한민국

심사평: 비극적인 삶에 갇혀버린 주인공 문정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작품으로, 노인과 아이, 여성 등 각각의 캐릭터가 개성 있고 주체적으로 묘사됨. 노부부와 요양보호사라는 평범한 소재를 사용해 숨 막히는 서스펜스를 만들어 낸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임.

16. 왓차단편상

[수상작] <타인의 삶> | 노도현 | 대한민국

심사평: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물 간의 대화만으로 진행되지만, 뛰어난 연출력으로 서스펜스와 몰입도를 놓치지 않음.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의 말 몇 마디로 쉽게 깨져버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가 돋보임.

17. 오로라미디어상

[수상작 1] <비닐하우스> | 이솔희 | 대한민국

심사평: 영화 <비닐하우스>는 주인공 '문정'을 통해 소외된 약자들을 둘러싼 참담한 관계들을 극적인 파국으로 몰아가며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한편의 밀도 있는 드라마로 몰입감 있게 만들어냄으로써 영화적 성취를 훌륭히 해내었다.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수상작 2] <빅슬립> | 김태훈 | 대한민국

심사평: 영화 <빅슬립>은 따뜻하고 단단한 영화다. 단백하고 능수능란한 연출과 '기영' 역을 맡은 김영성 배우의 연기는 치유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훌륭히 성취해낸다. 아이들의 렌턴이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다.

18.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Birth> | 유지영 | 대한민국

심사평: 이 작품은 여성의 임신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가부장 통념에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들은 약 2시간 반 동안 '함께 경험하기'를 통하여 생물학적 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몸의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생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했기에 이 영화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19.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 비나이 슈클라 | 영국

심사평: 이 영화는 언론의 중립성과 우민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킨다. 기득권과 결탁한 언론이 혐오의 필터로 대중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론과 대중의 태도에 들끓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20. 이춘연 영화인상

[이춘연 영화인상] 백재호 | 프로듀서 | 대한민국

이춘연 영화인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강제규(대한민국/감독)

심재명(대한민국/명필름 대표)

유지태(대한민국/배우)

정한석(대한민국/프로그래머)